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강해

영적 전투

(에베소서 6:10-19)

성도는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사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는 말처럼 영적 전투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 마귀의 전략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곧 무서운 마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우리의 영적 전쟁 대상인 것입니다. 어둠은 불신앙과 무지의 대명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전쟁에 노련하며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악한 것으로 끌고 갈뿐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덩벼듭니다. 이들은 가까운 친구, 형제처럼 다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영적 무장

마귀의 꾀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귀와 싸우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과 밀착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하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3. 영적 전투의 전략

튼튼한 갑옷을 입고 적을 잘 알아도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략은 기도 전략입니다. 혼자 싸우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18절). 여기서 모든 기도는 찬양, 회개, 감사, 탄원의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된 기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씀 맡은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목사 자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면 교회나 성도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기도 전략을 앞세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Spiritual Battle

(Ephesians 6:10-19)

The saints who battle against the world, the devil, and themselves are like spiritual angels. Just as there is not a second winner in war, this text tells us that the spiritual battle must be won.

1. The strategy of the devil

The subject that we fight against is not flesh and blood, but a spiritual entity, which is called the horrible devil. The rulers, the authorities,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are all subjects of this spiritual battle. Darkness is a pronoun describing unbelief and ignorance. The power of darkness is skilled at warfare and is very strong. It is a terrible power that comes at us, draining us of our own. It not only draws us out to evil, but also pushes us to the point of collapse.

The power of darkness, that is, the power of Satan, attacks us like a roaring lion. He approaches us as close friends or brothers, and sometimes appears like an angel of light.

2. In the arms of the Spirit

We must be spiritually strong and armed with God's word in order that we might not be fooled into the trap of the devil. Anyone who wants to stay spiritually strong must remain in the Lord.

We must fight against the devil with the power that God has given us. When we remain in God, have real fellowship with Him, and fight against the devil with the power that He has given, we will be able to win handily against the devil.

First of all, we must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e will be spiritually armed. When we refer to the full armor of God, this means that all the parts belong to God. Moreover, we must buckle the belt of truth around our waist, put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have 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and in addition,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e must also put on the helmet of salvation and wield the sword of the Spirit, and engage in the fight of the Spirit with the word of God.

3. The strategy of the spiritual battle

No matter how strong our armor is, and no matter how much we know about the enemy, we cannot defeat them without a proper strategy in battle. Our strategy of battle is the strategy of prayer. If we fight alone, a hundred battles will equal a hundred defeats.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v. 18). Here, "all prayers" refers to the four prayers of praise, repentance, thanksgiving, and entreaty. Moreover, the Apostle Paul is requesting that we pray for those who take charge of God's word. It is crucial that pastors do not hold their position on their own, for if they fall into weakness, they will preach an insufficient gospel, and the church and the saints may suffer great losses as a result.

My beloved Christians!

As we wear God's armor and follow the strategy going forward,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all be God's faithful people who defeat the world, the devil, and themselv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1년 섬김위원 임명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부터 2011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할 모든 섬김위원(각 부서, 찬양대, 교사) 및 남녀 서리집사, 협동 집사를 임명한다. 오늘 주부와 함께 배부된 2011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받아 2011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3부 예배 후에는 교구총회로 본당에서 모인다.

2011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 12월31일(금) 오후 7:30 - 오후 10:00
순결서약식 -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0 순결서약식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며 참가신청은 각 담당 교회학교에서 취합하여 12월22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5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2011년 순결서약식이 1월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요일 3:3)를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2010 한국 군선교의 밤

12월16일(목)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주제로 2010 한국 군선교의 밤이 12월16일(목) 오후5시에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군선교사역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행사는 한국교회 군선교사들의 연합과 성탄 송년 예배, 2010년 사역결산 감사와 2011년 사역헌신 다짐을 위하여 개최되며 오후5시부터 8층 만나홀 앞에서 등록을 접수받으며 만찬 후 오후 6시20분부터 성찬음악회가 열리고, 7시 10분부터 드리는 예배는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비전 2020자매 부대

2010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1994년 진중세례식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이 서울강남노회 협력을 얻어 서울교회 주관으로 12월18일(토) 오후2시30분에 거행되며, 이날 설교와 성찬집례는 이종윤 목사가 담당한다. 당일 오전8시30분에 세례, 성찬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9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수요 I · II부 예배장소 임시변경

12월8일(수), 101호

12월6일(월)부터 10일(금)까지 파이프 오르간 수리 및 조율로 인하여 8일(수) 수요예배의 장소를 웨스트민스터 홀(101호)로 변경하여 예배를 드린다.

『칼빈길』 표지판 설치하다

"삼성로 서73길"에 명예도로 칼빈길 표지판을 12월2일(목)에 설치하였다. 명예도로 칼빈길 신청은 2009년 3월 3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안내표지 및 지도상에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한바있다. 지난 2010년 11월6일, 7일 양일간 실시되었던 "명예도로 칼빈길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찬성을 76%라는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길을 걷는 이 마다 제2, 제3의 칼빈이 되길 바란다.



필사성경 교회기록물로 영구 보존 한다

우리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 글자씩 적어간 '필사성경'을 교회기록물로 도서실에 비치하여 영구보존한다. 이 필사성경은 도서실이 생기기 전 살롱권사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쓴 것으로 교회는 이 성경을 제본하여 도서실에 보존하려 하나 개별적으로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서 찾아가기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하도록 기도한다.

2011 스테반회 · 권사회 회장 부회장

- 제1스테반 회장 김진환, 부회장 최규초
- 제2스테반 회장 오치열, 부회장 이동만
- 제1권사회 회장 김예환, 부회장 남태순
- 제2권사회 회장 최미아, 부회장 김선영1
- 살롱권사회 회장 김혜경, 부회장 홍광숙

2011년 선교회 ·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선교회	회장	부회장	전도회	회장	부회장
빌립	심군섭	노창훈	도르가	노애리	홍지민
안드레	김승록	김영희1	루디아	김숙영2	서양지
베드로	최원석	박형수	뵤뵤	김정계	전광환
비올	김은태	박광식	마리아	박현영	권영월
엘리아	김중철1	이길재	에스터	김찬진	김진희
모세	김광룡	이남성	한나	이은옥	곽선자1
이삭	유승순	김재성	리브가	손재겸	박우주
아브라함	이재운	김영주	사라	김종자	최급자1

기독교공보주간논단원고

연평도사태 어떻게 대처할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주관하신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연평도 포격사태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북한을 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몇 배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반면에 일부에서는 북한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제공을 남한이 했으니 실제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므로 조속히 평화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며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듯 비록 목숨과 재산을 잃고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는 가족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3.40대의 40%가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못하겠다 했으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악의 소굴이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나라다. 천안함사건 때 45명의 젊은 피를 제물로 바치고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허점을 노린 북한은 현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여론이 커질 것을 겨냥하고 이 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런 악의 집단의 정체를 이제라도 우리 국민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었으나 국민이 하나 되게 했으니 크게 감사할 일이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파스 로마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대량살상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타부시하고 선부른 평화논리를 앞세우는 이들이 있다. 성경은 개인윤리와 집단(국가)윤리를 구별하여 가르친다. 권세 잡은 자가 칼을 손에 쥔 것은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위로부터 받은 권세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가 선을 행한 것은 산 위에 등대처럼 온 세상에 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평도 사태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신속한 응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을 당국자들은 반성과 결의를 갖고 겸손히 들어야 한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3차 대전의 위협을 각오하고 해상봉쇄를 명령했다. 결국 미사일을 실은 소련 선박을 회항시킴으로 전쟁은 터지지 않았지만 평화와 안보는 피와 땀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

“ 대한민국 군인은 나라를 위해 외신상당(臥薪嘗膽)하는 자세와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흘리는 값비싼 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과거 소위 좌파정권이 남북평화를 정착시킨 공이 있었다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어 이론 거짓평화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민족 간의 평화를 구호처럼 외치는 이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인권을 묵살하며 백성을 굶겨 죽이는 악령이 판을 치는 어둠의 세상에 무슨 평화 있었는가. 있다면 그것은 위장평화일 뿐이다. 우리는 유사시 전쟁을 각오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셋째, 우리 군인들의 깊은 잠을 깨울 수 있어 감사한다. 국가에 군인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전후방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군인이다. 전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혹 상황판단을 더디게 한다 해도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은 위기 상황에 위기 대처를 해야 한다. 혹 그 판단이 후에 대통령 뜻과 어긋나서 웃을 벗는 일이나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했다. 우리 국군의 사병들이 그 위태로운 외중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가는 모습은 모든 국민의 찬사를 받아야겠지만 소위 지휘관급에 속한 이들이 국토방위의 책임을 지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나라를 위해 외신상당(臥薪嘗膽)하는 자세와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정한 군인으로

넷째, 군사비밀이 날마다 TV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또 한 번 근심케 한다. 어느 지역에 무슨 부대가 있고 무기 종류와 성능 그 숫자까지 경쟁이나 하듯 날날이 보도하는 것은 적의 공격 전술에 도움을 줄 뿐이다. 특히 국회에서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공로나 세운 듯이 국가비밀이나 군사비밀이 백일하에 노출시키는 것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클 것이 틀림없다. 현실적으로 무기의 질과 양이 열세라면 보강해줄 뜻으로 건설적인 질문보다 한 건 폭로를 하여 자기 업적을 쌓는 식의 소(小)영웅주의는 언론이나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

끝으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응징을 하되 군사적 방법이 아닌 방법을 써야 한다. 그 방법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UN이 결의한 북한 인권 특히 신앙자유를 촉구하고 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하여 북음화된 통일 조국 실현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연합 뉴스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the Advent)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Season of Hope)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금년은 11월 28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한다.

편집부

스데반 회장 · 권사회장을 마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최광성 집사(제1스데반회 회장)

부족하기만 한 제가 16기 제 1 스데반회 회장으로 섬김의 명을 받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회원들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일, 제 2 스데반회와의 연합을 이루어 사업을 진행 시키는 일, 교회 청소, 주차 안내 등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섬겨야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교우와의 관계, 회원과의 관계에 대한 여유 공간이 줄어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하는... 의구심이 드

는, 허물 많고,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야만 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마다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제 1 스데반회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연합을 이루어 "사랑의 대잔치"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 하여 준 제 2 스데반회 집사님들 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09년 총회시 주님을 위하여 해로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익이 되었던 명예, 권력, 이익, 아니 목숨까지도 버리며 순종한 스데반회 집사를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 하시며 스데반회에 속한 집사의 직분은 순종이 제일임을 상기시켜주셨던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던 주님의 사랑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의 출발점에 서 있는 김진환 회장을 비롯한 제 1 스데반회의 힘찬 출발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간직했던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충성된 제 1 스데반회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윤숙희 권사(제2권사회 회장)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교회 표어와 함께 부르심에 순종만으로 출발했던 2010년! 어느듯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피어나 저물어가는 이즈음입니다.

세계를 향도해 나갈 서울교회 제2권사회 회장으로 부르시어 막중한 사명 앞에 이 연약한자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일해 주셨고 작은일에 지쳐있을 때 따스한 손 내밀어 잡아 주시며 끝자락까지 끌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가득 채워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못다한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마음의 무게로 남습니다. 제2권사회가 정성으로 함께한 만나홀의 섬김이 크나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것에 충성하며, 차고 넘치는 한해였습니다. 회원들과 동거동락하며 굶은일 마다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일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헌신한 제2권사회 임직원과 회원들 한분한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향기로 피어나 신행일치와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Coram Deo!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무지개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캐롤 모음곡 '오늘 주가 탄생하셨다 (Benjamin Britten)' 등 5곡과 '기쁨 넘치면(J.Perry)'을 강영모선생의 지휘와 김동아선생의 피아노반주로 연주한다.

지휘자 강영모선생은 연세대 음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경성대와 침례신학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7일(화) 기독교교도소 준공감사에매시 격려사를 한다. 8일(수) 서울 강남노회 전노회장모임에 참석한다. 9일(목) 한국로잔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개업: 한상준 집사 임명숙 집사(8교구) 롯데금융상조 경기도의 정부시 의정부동 214의 84 남평프라자 7층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12.5) 에스더전도회(12.12)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새가족부를 마치고

삶의 세 가지 목표



정두영 성도(14교구)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한다는 속담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4년 전 저의 가족은 그동안 살던 충청도를 뒤로 하고 서울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듯이 그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는 직장 근처의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송파구 송파동의 상가주택에서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서울생활은 바쁜 직장생활과 함께 건전하지 못한 집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내다가 주변환경이 좋은 일원동으로 2010년 5월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의 변화에 비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의 8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3가지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울생활은 바쁘고 생동감은 있었으나 시골생활에

서 느끼던 따뜻한 이웃간의 사랑을 찾지 못하여 간혹 귀향을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마음의 언덕이 되는 서울교회가 있어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둘째, 주(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목표입니다. 20여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회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주(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젠 주(예수)님이 있기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위하여 노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배움의 길로 가는 목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작한 직장생활은 저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어 근무시간 이외는 항상 배움으로 지금까지 보내고 있으나 이젠 평생 같이 할 성경말씀을 알기 위한 마지막 배움의 길로 가는 목표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있는 저는 이상과 같이 3가지 목표를 서울교회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 가족은 함께 기도를 통해 힘을 모아 직접 찾아가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4. 연말 연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교회오시는 길

